第4回 語學研究會

言語學分科 討論會錄

主 題 : 國語統辭構造와 變換生成理論

司 會 朴 南 植(서울大 語研)

討論者 金 完 鎭(西江大) 朴 舜 咸(外大)

李 基 文(서울大 文理大) 李 鴻 培(陸士)

司 會: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국어통사구조와 변환생성문법이론"이란 제목입니다. 오전의 발표회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관한 세 가지 다른 문제를 세 분의 발표자께서 제기해 주셨읍니다. 이제 그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몇 분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에 들어가려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로 됐던 이현복 선생님께서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신 것을 섭섭히 생각합니다.

먼저 김완진 교수님께서는 '와'를 Lakoff 교수의 이론에 따라서 다시 분석해 보신 결과, 과거의 국내학자들이 비교격·동반격 또는 접속조사(열거격)의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모두 '접속'의 기능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도달하셨읍니다. 또 발표 제목으로 붙이신 "문접속(文接續)의 '와'와 구접속(句接續)의 '와'"에 각각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도 들어가면서 설명하셨는데 선생님의 분석이 여러 제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선생님의 주장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설정했던 '와'에 대해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이기문 교수님께서 오전에 들으신 바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가 계시면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李基文: 김선생님의 소론은 국어국문학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번 읽고 오늘 또 들었지만 대체로 별로 더할 이야기는 없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밖에 없는데 우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표면구조를 가진 문장이 내면구조에서는 아주 다른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에 변형문법을 적용하여 본 시도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도입된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어에도 이런 새 이론을 적용한 착실한 논문이라고 할밖에 별로 비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司 會: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홍배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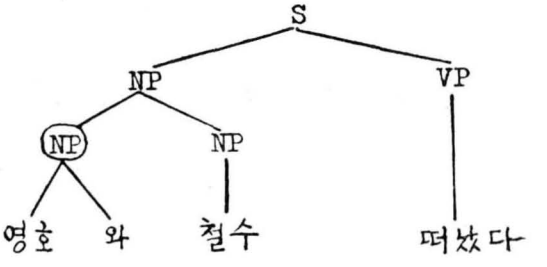
李鴻培: 칠판을 좀 쓰겠읍니다. 우선 金完鎭선생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은 symmetrical predicate는 句接續(phrasal conjunction)을, stative predicate는 文接續(sentential or derived conjunction)을, 그리고 non-stative predicate는 구접속과 문접속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죠?

金完鎭: 네.

李鴻培: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다. 먼저 symmetrical한 현상은 술부(predicate)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명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령 'A와 B가 친척이다'라고 하면 A 한쪽만이 B에 대한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 상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와 B≡B와 A) 또한 '친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A와 B가 닮았다'에서도 A는 B와 닮았는데 B는 A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될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A와 B≡B와 A의 현상은 논리학에서는 성립되나 언어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읍니다.

가령 다음의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영호와 철수가 떠났다"는 문장은 ambiguous합니다. 하나는 '영호'와 '철수'가 함께 떠난 상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따로따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다음 (1)과 같은 심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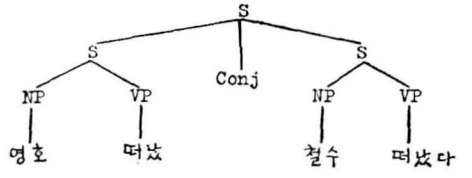
위의 구절표지는 구접속의 한 예입니다. 동그라미를 친 NP를 '철수'와 '떠났다' 사이에 이동함으로써 다음 문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수가 영호와 떠났다' 이 문장은 ambiguous하지 않습니다. 즉 둘이 함께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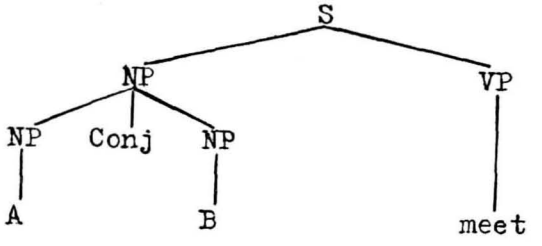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철수'와 '영호'가 따로 떠났을 때의 심층구조는 다음 (2)와 같읍니다.

그런데 문접속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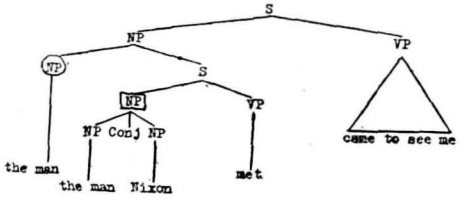
① relative clause를 형성할 때입니다. 예로서 다음의 문장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 The man who met Nixon came to see me.
'meet'는 symmetrical predicate 로서 'A meets B' 는 Lakoff 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 문장의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친 NP 와 사각형친 NP 가 다르므로 위의 구조는 Relative Clause formtion 의 기본원리인 'Relative Clause 는 그 head noun phrase 와 동일한 noun phrase 를 내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읍니다.

② 영어의 'attempt'와 'try' 같은 동사는 'want' 와는 달리 'like-Subject constraint'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여 위의 동사를 주동사로 하는 문장에 내포된 문장은 위 동사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를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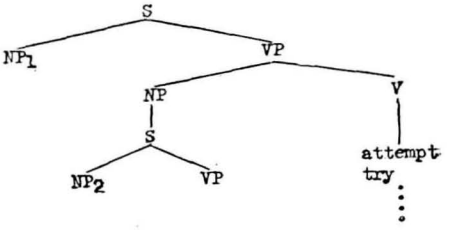
ⓐ 1. I attempted to go.

2. *I attempted you t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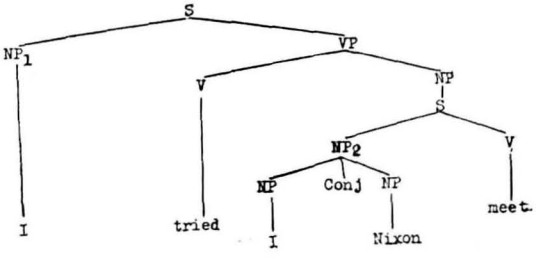
ⓑ 1. I want to go.

2. I want you to go.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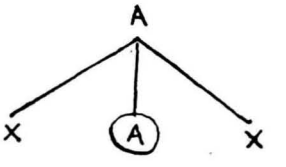


위의 구절표지에서는 NP_1 이 NP_2 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Lakoff 의 주장을 따르면 아래 ⓒ의 심층구조는 이와 같은 조건을 위배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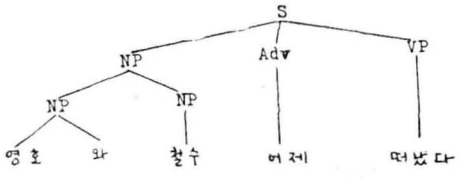
ⓒ I tried to meet Nixon.

③ 'A over A convention' 이다. 이 현상은 가령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을때



동그라미 친 A 를 다른 곳으로 옮길수 없다는 제약입니다.

가령 '철수가 어제 영호와 떠났다'는 문장을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에서 '영호와'를 재정치(再正置)시킴으로써 유도하는 것은 이 'A over A convention' 의 위반인 것입니다.



司 會: 李선생님께서 애매성과 의미론적 해석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읍니다. 좀 긴 말씀이셨는데 金선생님께서 혹시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金完鎭: 아까 '국어국문학지'에 실렸다는 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 이상의 내용이 있었읍니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책임이 Lakoff 에게 돌아갈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가 대리로서 책임질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읍니다.(웃음) 그러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의 문자 '와'로 표시되는 것이 실제로는 두개의 utterance 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P_1과 NP_2"가 단순한 구접속에 의한 병렬이 하나 있고, 또 "NP_1과 NP_2"가 그들이 얘기하는 문접속인 경우가 하나 있읍니다. 그런데 표기 상으로 보아서는 양자의 구별이 없지만, 문접속에서는 'NP_2와 NP_1이'라는 이동이 가능하며 또 그 사이에는 충분한 휴지(休止, pause)가 있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상당한 휴지가 인식되지 않을 때는 이동이 불가능한 구접속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접속을 내면구조에서 요구되는 두 개의 문장의 복합이라 하셨는데 지난번 제 논문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 언급했던 것입니다. 잠시 중세국어의 예를 보면 "—과— 과가 ᄃᆞᆮ다"와 "—이—과 ᄃᆞᆮ다" 보다 좀더 일반적인 형태로 "—이—이 ᄃᆞᆮ다"가 있읍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있어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A 이 B 이 ᄃᆞᆮ다," "B 이 A 이 ᄃᆞᆮ다"라는 두 문장으로 부터 "A 와 B 와이 서르 ᄃᆞᆮ다"라는 것을 설정하여, 현대국어에서 여러가지 구접속에 의한 문장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았읍니다. "다ᄅᆞ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A 이 B 와 다ᄅᆞ다" 뿐만아니라 "A 와 B 이 다ᄅᆞ다" 또는 "A 이 B 에 다ᄅᆞ다"가 있읍니다. 그러면 "A 와 B 와 다ᄅᆞ다"하는 것은 "A 이 B 에 다ᄅᆞ다." "B 이 A 에 다ᄅᆞ다"란 두 문장의 복합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만나다"의 경우인데 현대국어에서 이것이 반드시 "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어원적으로는 "맞—나다"라는 두 요소의 복합동사입니다.) "A 가 B 와 만나다"가 존재하면서 "A 가 B 를 만나다"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A,B 둘이 동등한 자격으로 우연히 맞부딪친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A 가 B 를 찾아갔다든지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이라는 한 형태 속에 두 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의 부사 '마주'가 나타내는 상호 교호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타동사 '맞다'에서처럼 일방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맞다'가 어느 쪽으로 쓰였는가에 따라서 symmetrical *predicate* 로 되는가 아닌가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바꾸다'의 경우는 한쪽 의미 즉 일방적 행동으로 밖에 쓰이지 않지만, '만나다'의 경우는 본래 복합동사로서 그 앞에 교호(交互)의 뜻을 갖는 요소가 있거나 또는 본래 타동사로서 '맞다'가 목적어를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산만하게 이것 저것 언급드리자면, 아마 李선생님께서 크게 강조하신 *relativization* 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영어의 구조에 많이 집착해 온 변환문법이론이 혹 반성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토이기어의 경우는 영어의 relativization 상의 일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postaci olmiyan adam (우편 배달부가 아닌 사람) *oğlunun bir kitap aldiği adami* (그의 아들이 한권의 책을 산 사람)

위에서 simple participle -(y)En 과 complex participle -(I) DIK 의 두 participle 이 있는데 철번것은 다른 많은 언어에서처럼 일치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와는 달리 밑의 것은 보통 다른 언어의 표현에서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반드시 possessive suffix 가 붙게 마련 입니다. (*oğlu* 의 'u', 책을 산 것은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일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relativization 이 이루어지는 언어가 존재하니까 이러한 relativazation 에서의 일치가 모든 언어에서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

서 영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Lakoff 등도 이미 관심을 표시한 바와 같이 널리 일반성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점으로 압니다.

司 會: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중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明倉勤: "A와 B는 원수다"라면 "B와 A는 원수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와 원수다"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나도 그도 서로 함께 원수다"라는 뜻과 "나는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만 그는 나를 원수로 생각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金完鎭: 그때의 predicate의 문제는 의미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좀 딴 예로 설명하여 "나는 반대다"로 생각한다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고 또 "나는 영웅이다"와 같거나 또는 다를 경우가 있겠읍니다. 결국 그 문장자체가 애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傍聽者 A: 문접속의 "와"와 구접속의 "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현배 선생께서 "A와 B가 싸웠다"를 동반 또는 여동격(與同格)으로 보셨던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선생께서 말씀하신 문접속의 "와"가 앞으로 또는 뒤로 놓일 수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치사구나 다름없어 주어부가 아닌 서술어부분에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金完鎭: 그것은 표면구조의 문제가 아닙니까?

傍聽者 A: 표면구조보다는 내면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와 싸웠다"라 할때 "나는 그와"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치사구가 되어 "싸웠다"를 수식해 주는 "여동부사격토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金完鎭: 아까 이홍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Nixon과 Agnew와 Humphrey와 Muskie(와)가 싸웠다" 할때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굉장히 애매한 것이 될 수도 있읍니다. "Nixon과 Agnew"가 한편이 되고 "Humphrey와 Muskie"가 또 한편이 되어 싸울 경우 뿐만아니라 "Nixon과 Agnew와 Humphrey"가 한편으로 뭉치고 Muskie와 대항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Nixon과 Agnew와" 다음에 휴지를 두어 애매성을 피하거나 이런 구조의 표현을 택하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구접속의 관계는 그 안에서의 연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Nixon과 Agnew가 X와 싸웠다"에서…

傍聽者 A: 바로 그 "X와"를 동반격으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매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애매성이란 어느 언어에 있어서나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언어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애매성의 현상은 내면구조가 두 가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닉슨과 애그뉴가 X와 싸운다"에서 닉슨과 애그뉴가"가 주격토씨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험프리와 머스키와"란 전치사구와도 쓰일 때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完鎭: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읍니다.

李鴻培: 제 생각에는 아까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를 줄여서 가령 "닉슨과 험프리가 싸웠다"도 좋고, "험프리가 닉슨과 싸웠다"도 있읍니다. 후자에서는 "과"를 최현배 선생님처럼 여동격토씨로 보아야지 문접속으로 생각해서 이동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아닙니까? 제 제안은 전자의 예는 다른 예문 "닉슨과 험프리와 떠났다"와 달리 두 가지 뜻이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전자의 예문은 두 문장이 합쳐서 나온 명사구가 있는 것이고 후자의 예문과는 뜻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 애매성은 능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후자의 예문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金完鎭: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예문의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李鴻培: 마찬가지 예문을 하나 더 들면 "아들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아들과 아버지가 닮았다", "아버지가 아들과 닮았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등과 비교될 수 있는데 이중에 셋째 예문은 아주 어색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과 닮았다는 왜 이상하게 들리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 구조상의 이동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金完鎭: 방향을 가진 동사라는 것은 문제가 있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한 것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좀 바

꿔, "형과 동생이 닮았다" 뿐만아니라 "동생이 형과 닮았다"라는 예도 성립함을 볼 수 있읍니다.

李鴻培: 그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따질 때 동격관계까지 뒤범벅을 해서 보는 것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를 보려는 입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金完鎭: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아들이 못났고 또 아버지도 못났다는 의미로 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웃음)

李鴻培: 네, 그런 의미말고요, 요컨대 논리적으로 영어에서 명사화(nominalization)하면 depend와 on 은 붙어 다니는 것처럼 "와"도 꼭 붙어다닙니다. 또 resemble 은 우리말의 "을"이 붙는 것처럼 "resemble to him 이라 하지 않고 그냥 resemble 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휘론적인 특징입니다. dependency 에는 of 가 아니라 on 이 오는 것은"싸우다"에 "를"이 오지 않고 "와"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닮다"는 "와"와 "를"이 수의적으로 붙습니다.

金完鎭: 그것은 "와"가 생략될 수 없는 marker 로 수의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李鴻培: 그러니까 "와"를 동반격이니 하면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司 會: 죄송합니다. 첫번 주제만으로 거의 한 시간 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만 부득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徐正洙: 문제는 내면구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닉슨과 험프리가 싸웠다"에서 두 문장으로 풀어질 수 없다면 이 자체를 내면구조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닉슨과 험프리가 영웅이다"했을 때는 분명히 두 개의 문장인데, 위의 예문은 이것이 불분명한 것이겠지요. 이때의 "와"는 접속사와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리라고 보아집니다.

司 會: 그러면 徐 선생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이 주제의 토론을 끝내고, 다음 박순함 선생님께서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를 변형문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발표해 주신데 대한 토론으로 들어 가겠읍니다. 특히 이론적인 배경으로 도입하신 것이 Fillmore 와 Langendoen 두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격문법 (case grammar)이라고 하셨는데 Chomsky 의 이론과 다른 점이라든지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난 번 박사논문은 주로 Chomsky 이론에 의한 것이라 하셨으니까 두 가지 방법론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朴舜咸: 거기 대해서는 오전의 발표에서 선명히 말씀드렸어야 할 텐데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homsky 가 주부와 술부로 나누어서 내면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꽤 새로운 것 같았읍니다만, 주부와 술부는 전통문법에서 설정한 것과 그렇게 틀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읍니다. 아닌게 아니라 Chomsky 도 변성문법의 이론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었고 이제 격문법의 이론을 다루어 보니까, 주어가 내면구조의 고정적인 항목으로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생각됩니다. 아까 "겹주어"(二重主語)라고 말씀드린 바 국어에서 주격의 중복현상이 격문법으로서 좀 더 분명히 해명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司 會: 그러면 아까 김선생님께서도 격문제를 다뤄 주셨는데 이 이중주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연구하신 바에 비추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金完鎭: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아주 새로운 경향의 연구를 해 주셔서 많이 계몽된 바 있읍니다.

司 會: 이기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基文: 저는 아직 Fillmore 의 논문을 자세히 읽어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고, 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주어의 존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주어가 없는 문장의 존립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문장에서 주격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 문제들은 여러모로 검토 연구되어야할 과제겠지요.

朴舜咸: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간단한 한 문

제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동서양은 문화구조만 거꾸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언어구조도 거꾸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룬 문제도 Fillmore의 이론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순서가 바뀌는 현상이 신기합니다. 또 가령 영어의 부정(否定)문제를 Klima는

(Neg) I……

로 다루었지만 국어에서는 부정 요소가 제일 뒤에 오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정 반대인 것입니다. 또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도 처음의 주격은 흔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리지만 두번째 주격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제약되는 것입니다. 또 "물이 얼음이 된다"에서도 두번째 "이"는 반드시 남아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즉 뒤에오는 주격일수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영어에서 대동사(代動詞, proverb) 용법은 *Yes, I did.* 와 *Yes, I want it.* 에서 처럼 지워지는 것이 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어는 이와 반대로 앞에서부터 지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또는 "밥을 내가 먹었다"에서 앞 쪽일수록 격이 많이 붙는데 그것들은 쉽게 바뀝니다. 그러나 서술어에 가까워질수록 고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이번 과제를 다루면서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느꼈읍니다.

司 會: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를 기술하면서 한국어와 비교해 볼 때 일어나는 많은 경험적 문제점, 특히 어떻게 보면 양극에 이르는 현상을 많이 지적해 주셨읍니다.

이제, 이홍배 선생님께서 앞서 내세우셨던 어프로우치(approach)가 박선생님의 그것과 대조되는 듯한 면을 보였는데 혹시 이중주어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요.

朴舜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면구조상 격의 순서 나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의 순서는 내면구조에서 표면구조로 자유롭게 결정해 가는데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내면구조에서 문법적 주어라고 생각되는 맨앞의 NP가 분명히 하나 있으니까(두 개 있을 때는 특별한 강조라고 보통 달하지요 *Him, I like*) 순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나무가 잎이 노랗다" "나무가 잎이 노랗게 된다"라 할 때 "나무가"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된다"에 대한 주어는 "잎이"인 것 같아서 "나무가" 보다는 주어성(主語性)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 싶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잎이"에서 "잎이"는 두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표면구조에서 위치 문제는 국어의 특수한 어순 때문에 영어와는 다른 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司 會: 청중석으로 마이크를 또 옮겨 보기로 하겠읍니다.

徐正洙: 격문법에 대해서는 최근 발전 단계에 있고 박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의 해결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대체로 주어를 N_1과 N_2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잡느냐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형용사 약 500개 또 동사 약 300를 뽑아서 분석해 본 결과 약간 어색한 것도 있읍니다만 "N_1의 N_2가"든지 "N_1에(서) N_2가"로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N_1과 N_2가 모두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N_1은 떨어져 나가고 N_2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되다'의 경우는 N_1이 부사나 관형사 자격으로 되는 일이 없어서 위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그 사람이 군인이 되다"가 "그 사람의 군인이 되다"나 "그 사람에 군인이 되다"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군인으로 되다"처럼 N_2가 "으로"를 붙여 소위 변성격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되다"의 경우는 N_1이 주어가 되고 N_2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물에서 얼음이 되었다"란 예와 "그 아이가 반장이 되었다'란 예에서 "물로부터 얼음이 되었다"는 가능해도 "그 아이로부터 반장이 되었다"는 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다"는 첫번 것을 주어로 잡고 둘째번 것을 "으로"로 바꾸어 내면구조를 삼으면 다른 어떤 기저문장을 가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朴舜咸: "물이 얼음으로 된다"를 내면구조로 생각할 때, "으로"를 변성격으로 보는것은 "된다"라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徐正洙: 본래 언어의 내면구조는 논리적인 것인데 실제로 비논리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

이겠읍니다. 이중주어가 옛날부터 "—이 —이"로만 나타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격으로도 나타나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에서의 "이"는 "으로"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가 병용되다가 "—이 —이"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朴舜威: 그렇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徐正洙: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A에서 B로 되다"가 정상적이겠으나, 그것을 표면구조에서 "—이 —이"로 표현하는 구조로 바꾸어 놓아야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朴舜威: 바로 그 "으로"가 "이"로 변하게 되는 점을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徐正洙: (웃음, 無答)

李鴻培: 가령 독일어에서는 '되다'에 상당하는 동사가 주격을 받지요, 또 It's me. 도 본래는 It's I. 로 주격이 오는 것이라든지 라전어에서도 대개 주격이 오는 것도 상관될 것입니다.

傍聽者 B: 참고로 중세국어에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돗가비를 제몸이 ᄃᆞ외니"같은 예는 "N_2를 N_1이 되다"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제몸이 돗가비로 ᄃᆞ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수 선생께서 "N_1이 N_2이 서술어"로 된 구조는 대체로 "N_1이"가 다른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같은 구조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예가 있는 것같읍니다. 가령 "내동생이 생일이 내일이다"에서는 "내 동생의 생일이 내일이다"로 되지만, "내 동생이 내일이 생일이다"라 할 때는 "내 동생의 내일이 생일이다"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예로 "나비는 꽃이 좋다"에서도 "나비의 꽃이 좋다"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가 가능합니다.

李鴻培: 그런데 그 문제에서 "내 동생이 내일이 생일이다"는 "내 동생은 생일이 내일이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어순이 바뀌어진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풀리지 않는 것은 "나의 그 여자가 좋다" 같은 뒤에 드신 예입니다.

徐正洙: 그것도 '나에게 그 여자가 좋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격만으로 안 될 때는 또 다른 것으로 해야지요.

朴舜威: Fillmore가 속격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그럴 듯한데요, 작년의 어학연구회에서 손호민 선생님이 인류언어학에 대해 발표하실 때도 나왔지만 속격에는 양도할 수 있는 (alienable) 소유관계와 양도할 수 없는 (inalienable) 소유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와 코의 관계는 코가 코끼리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 여자가 좋다"는 나와 그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여자"는 성립되지 않는 alienable possession인 것 같아요.

李鴻培: 그러나 "그 여자가 키가 크다"에서는 그런 기준과 관계가 없지만 "그 여자의 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같이 추상적인 명사가 뒤따라 나올 때는 alienable이라 볼 수 없지 않는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고 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읍니다.

傍聽者 B: 앞서 질문의 계속으로, 이중주어가 실현된 문장 "그가 약점이 잡힌다"에서 피동사 "잡힌다"가 있는데 이 이중주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요? 물론 원형이 되는 문장은 "그가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힌다"로 볼 수 있겠는데요.

李鴻培: 그것은 "누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傍聽者 C: 아까 박선생님께서 "으로"가 "이"로 되는 동기를 물으셨는데 참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언해 두고 싶은 것은 국어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N_2의 주어가 중요시된다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朴舜威: 제가 "되다"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밤이 된다"는 예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 얼음이 된다"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가 밤이 된다", "낮이 밤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서 "물이 얼음이 되다"와 병행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으로"와 관계시켜 볼 때 양자가 똑 같은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계되는 문제가 하나있는데, 가령 "밥을 한 공기를 먹었다", "밤을 한 아름을 주웠다"에서 두번째 "를"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徐正洙: 그 문제는 제가 다루어 보았을 때도 보

통 시간 수량에 관한 말 뒤에는 의심스러운 주격과 대격이 붙는 일이 많았읍니다. 가령 "미군이 오백명이 철수하였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어서 이것들은 "오백명의 미군이 철수하였다",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 같이 바꾸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읍니다.

朴舜咸: 그런데 제가 의문되는 것은 왜 그 주격 또는 대격이 반복되느냐 하는 기초적인 문제 입니다.

徐正洙: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수량과 시간, 금액등의 숫자나 단위는 습관적으로 특별히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by 등의 전치사 뒤에 쓸 것이 국어에선 그렇게 된 것이며 그것이 내면구조에서 의미상 영어의 그것과 별다름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습관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읍니다.

司會: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국어의 부정(否定, negation)에 대해서 이홍배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기초로 토의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생님께서도 박사논문을 쓰셨었고, 또 미국에 계신 송석중씨께서도 다루신 일이 있지요. 그중에서 여기에 두 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이선생님께서 아주 깊이 파헤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박선생님께서 박사 논문에 쓰셨던 방법과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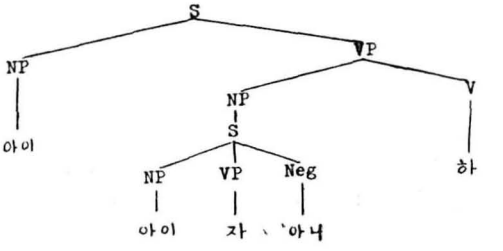
朴舜咸: 저하고는 퍽 다르게 하셨는데 물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싶군요.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저는 Neg 요소를 아주 S 바깥쪽으로 놓았는데 아까 이홍배선생님처럼 하면 퍽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석중선생께서 저와 동시에 별도로 발전시카고 있었던 "—지"에 대한 규칙에서 "—기"와 관계를 맺어서 하셨는데 아주 좋은 해결을 주는 방법인 것같습니다. 물론 역사언어학을 하시는 분은 "—지"가 "—기"에서 온것이 아니고 무관하다고 주장하시겠지만 현대어의 공시적 기술로는 이것들을 연관시킴으로써 멋있는 전개가 되는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못하나 몇개 반대되는 예가 있으니 그것만 해결하면 좋을 듯해요.

李鴻培: "—지"가 다음과 같은 데서도 나타납니다. "갔는지 알고 싶다". 여기서의 "—지"는 가령 이 문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알고 싶다"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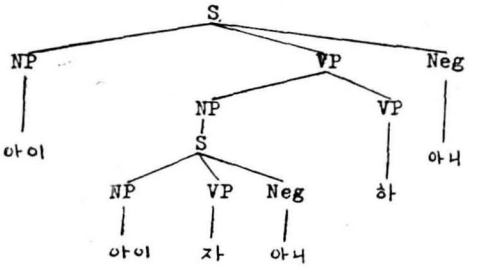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에 있는 문법규칙을 사용하여 국어의 부정을 설명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읍니다.

朴舜咸: 영어에서와 같이 Neg 를 앞에 내놓거나 제 논문에서 처럼 Neg 를 S 뒤에 놓으면 이중부정(double negation)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억지스러운 규칙을 만들게 되는 데 Neg 를 VP 속에 놓으면 double negation 설명이 좀 쉬워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李鴻培: 제 생각에는 Neg 를 앞에 놓던 뒤에 놓던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이가 안 잔다"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를 줄 수 있읍니다. 여기에선 박순함 선생님처럼 Neg를 문장끝에 놓았읍니다.



물론 일반적인 규칙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즉 Neg-placement(Neg-정치규칙)으로서 이 규칙은 문장 끝에 있는 Neg 를 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Neg-transportation 규칙을 Neg-placement 규칙 다음에오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읍니다. 그 다음 이중부정문제는 "아이가 안 자지 않는다"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Neg 가 VP에 포함되든지 문장끝에 오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舜咸：그런대 송석중선생께서는 "—기"뒤에 오는 "를"과 "가"에 대하여 별로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지를 않는다", "보이지를 않는다"에서는 "를"을 그냥 강조의 토씨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규칙으로는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李鴻培： 그러나 송선생께서 이런 언급을 하신 일이 있지요. 동사를 명사화하여 직접목적어로 만들거나 주어로 만들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明魯勳： *I have nothing.* 하고 *I don't have anything.* 겸해서 우리말의 "없는 것이 없다"를 관련지어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읍니다.

李鴻培： "없는 것이 없다"에서 "것"은 문제가 많아서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읍니다. 이 구조는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읍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갈 데가 없다.
나는 갈 리가 없다.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갈 것(?이)없다.

그런데 "없는 것이 없다"에서의 "것"은 대명사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가령 다음의 문장은 모호(ambiguous)합니다. "사과는 빨간 것이 좋다"에서 한 의미는 "빨간 사과가 좋다"와 연결된 것이고 또하나는 "사과가 빨갛다는 사실이 좋다"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은 ambiguous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똑똑한 것이 좋다." 이 문장은 "사장이 똑똑하다는 사실"의 뜻밖에 없읍니다.

앞의 문장에서는 "빨간 사과가 좋다"에서"사과"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에 "것"을 대신 대치시켜 놓고 나간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래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명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朴舜咸： 저는 이것을 요즘 숙제로 늘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없는 것이 없다"에서 "없는 것은 없다"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지난 "어학연구"에 김한곤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는"의 의미론적 분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없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exist here.* 즉, *I have everything.* 이란 뜻인데, "없는 것은 없다" 하면 '나는'이 앞에 있어서 *I don't have what I don't have.* 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와 "은"의 의미의 차이는 다른 예문의 경우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韓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몇해 전에 제가 발표할 때는 "은/는"을 다른 격(case)들이 변형되어 얻어지는 것으로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의 소위 특수조사라는 것은 변환문법이론에서라도 격과 관련시키면 무리할 것 같아요. 격(case) 조사는 NP와 NP 와의 상호관계나, 특히 동사류와 NP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며 동사류의 자질로써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으며 특수 조사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역시 Fillmore의 격문법의 방식이 크게 희망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저도 아까 박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전체적 방향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논의된 부정(Negation)의 문제에서 이홍배선생님이 이중부정(double negation)이 없다고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읍니다. 이중부정이 없다는 말은 Neg를 VP 안에 넣건 S에 지배되도록 하건 간에 상관없이 phrase structure에 한해서 말할 때는 이선생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意味)의 입장에서 볼 때 논리적 이중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말하자면 한 phrase structure 안에서만 이중부정이 없다는 말이지요?

李鴻培： 예, 그렇죠. 제 얘기는 뭔가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S는 하난데 여기에 만일 Neg가 몇 개씩 들어 가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지요.

金韓坤： 또 하나는 아까 김완진선생께서 말씀하신 "닮았다"의 문젠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같은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처럼 어떤 지향성(directionality)이 있는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전자를 기초로 한 분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Fillmore처럼 전제(presupposition)를 염두에 둔 분석을 유추하여 생

각해 보면 이러한 경우의 지향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령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닮았다"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자의적이 아니고서는) 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어휘(lexicon) 자체에서 생기는 이런 지향성을 어떻게 문법으로 기술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를 둘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고 lexicon 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李鴻培: 제가 Chomsky 쪽인 것 같은데요. (일동 웃음) 저도 다른 학자들의 생각을 좋은 점은 많이 따랐읍니다. 제 논문만 해도 Lakoff 를 많이 따랐읍니다. 저도 Chomsky 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일동 웃음). 그런데 아무리 Lakoff 를 따라도 우리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Chomsky 식 방식이 편리한 것이 있고 또 그게 언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결코 Lakoff 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동 웃음)

金韓坤: 저도 역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일동웃음) 또 세째로 한가지만 더 말씀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박순함선생께서 말씀하신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어느분이 이 문(文)을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로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할 수 있으니 "얼음이"가 보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패러프레이즈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문(文)이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다고 해서 패러프레이즈 문의 문법기능이 그대로 원문의 기능을 나타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문의 "얼음이"와 패러프레이즈의 "얼음으로"를 기능상 동일시하는 것은 양쪽 phrase structure 상에 상당한 비약이 개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느낌(intuition)에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에서 "얼음으로"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들리며, 우리처럼 언어학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험이나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徐正洙: 논리적으로 볼 때와 표면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을 볼 때를 구별하여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를 보면 결국 '—이—이'보다 '—이—로'되었다를 더 논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변했다'등에서 '으로'가 쓰이는 것도 참작하여 '—이—로'를 내면구조로 가정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司 會: 그러면 박순함 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舜咸: 일전에 어느 교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로 되다'를 많이 쓰는데 한국말의 어감으로는 어색한 것 같다는 비평을 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께 이중부정과 다른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가지 않지 않지 않았니?' 같은 표현이 있으며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는 '갖지 않았니?'하는 예를 거론해 보고 싶읍니다. 영어에서 You went, didn't you? 하는 Tag Question 하고 대응하며, 한편 '가지 않았니?'가 아니라 과거시제 표시가 더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쁘지 않아'는 어조에 따라 의문과 부정과 부정에 의한 강한 긍정등을 나타낼 수 있읍니다. 이렇게 이중부정과 이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선생님께서 좀…

李鴻培: 뒤에 드신 예의 몇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처음 예로 드신 '가지 않지 않지 않았니' 같은 말은 한 없이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장난에 불과하지 그것이 부정 연구에 거론될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갔지 않았니?'는 대개의 경우 묻는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 현상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개의 Neg 를 포함하는 문장이 의미상으로 긍정이 되는 예가 있읍니다. 즉 '안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세개의 부정요소가 있는데도 긍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司 會: 마지막으로 한 분쯤 더 발언하실 수 있겠읍니다.

徐正洙: 국어의 동사에 있어서 '안'이 붙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안타깝다. 안 아름답다'에서는 동사가 아닌 경우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李鴻培: 네, 그럴겁니다. '안 아름답다' 같은 예는 Lexicon 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Lexical rule 을 필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됨

니다.

徐正洙: 그런데 문제는 Lexical rule로도 반 정도 밖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李鴻培: 그 숫자가 어느 쪽이 많은가는 문제입니다. 부정이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는 지금 형편으로는 뒤쪽에서 '—지 않다'로 하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뒤쪽으로 오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표시하지 않고 수의적인 (optional) 것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이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요.

司 會: 오늘 오전에 주제 발표를 해 주시고 또 모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직 미진한 문제를 더 토론할 시간이 없어 섭섭한 감이 있지만 이것으로 제 4 회 어학연구회의 제 2 일째 언어학분과 토론회를 마치겠읍니다.

(記錄: 李相億)